

우간다 정치·경제동향

2009. 6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우간다(Republic of Uganda)

I. 일반개황

면적	197천 km ²	GDP	157억 달러(2008년)
인구	31.9백만 명(2008년)	1인당 GDP	492 달러(2008년)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New Uganda Shilling (NUSh)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달러당)	1,721 (2008년)

- 아프리카 동부 내륙에 위치한 우간다는 한반도 수준에 달하는 국토면적(197천 km²)과 31.9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DR콩고와 접경하고 있음.
- 196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IMF와 World Bank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거시경제정책의 운영 기반 구축, 꾸준한 거버넌스(governance) 개선 등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된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현 Yoweri Museveni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굳건한 지지 아래 안정적 국정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국경 지대의 영유권을 둘러싼 수단, DR콩고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제성장률	5.6	9.7	6.6	8.6	6.9
재정수지/GDP	-1.5	-0.7	-2.2	-1.9	-2.3
소비자물가상승률	3.7	8.4	7.4	5.9	12.0

자료: IMF, EIU

□ 양호한 경제성장세 유지, 그러나 '09년 이후 둔화 전망

- 2004-07년 우간다 경제는 현 Museveni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용을 바탕으로 한 수출 품목의 다변화,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평균 7.6%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2008년에도 세계 경기침체,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세 등의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의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6.9%의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경제적 탄력성을 보여주었음.
- 그러나 2009-10년에는 정보통신과 금융업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FDI 감소가 Bujagali 수력발전댐 건설 등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연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은 각각 4.0%, 5.0%로 둔화되어 200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 재정수지 적자기조

- 재정수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세수기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확충 및 각종 개혁추진으로 인해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만성적 적자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2004-08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평균 1.7%를 유지하였음.

- 2009-10년에는 정부 재정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대외원조가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여,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각각 3.4%, 3.5%로 확대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 상승세

- 소비자물가는 주변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적자와 정부의 강력한 통화정책 추진으로 인해 2007년까지 한 자릿수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왔음.
- 그러나 2008년에는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의 상승세와 수단 남부 지역에서의 식량작물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 식료품 가격 상승세의 영향을 받아 소비자물가가 사상 최고치인 12%를 기록하였음. 이 같은 추세는 2009-10년에도 이어져 동국의 고인플레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 정책

[구조적 취약성]

□ 취약한 경제 인프라

- World Bank는 '우간다 국가경제보고서'에서 규제완화와 같은 경제 정책만으로는 현 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 도로건설과 전력 확충 등의 경제 인프라 개선 없이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 역설한 바 있음.

- 인도양으로부터 800km 떨어진 내륙국가인 우간다의 지리적 특성상 케냐의 Mombasa와 탄자니아의 Dar es Salaam과 같은 수출항으로의 접근은 그 어느 인프라 보다 중요성을 지님. 그러나 성장하는 경제규모에 비해 낙후된 도로·철도망을 지닌 우간다는 현재 90% 이상의 물류를 도로를 통해 수송하고 있으며, 수송비용 또한 인근 국가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의 가장 큰 저해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우간다의 전력 인프라 개선 또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임. 총 인구의 3~5% 정도만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열악한 전력 상황에 놓여 있음. 또한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매년 6%씩 증가하는 가운데 현 최대 발전용량의 50%를 초과하는 전력수요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심각한 전력 부족 현상은 낙후된 도로 인프라와 함께 우간다 산업발전의 큰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음.
- *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간다 정부가 지난 2008년 10월부터 Kruama 댐 설립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왔으나, 동 프로젝트를 수주한 노르웨이의 Norpak Power社가 계약이행보증금 인상 문제를 두고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동 사업실시가 무기한 연기되어, 전력 공급부족 현상의 심화가 우려되는 실정임.

[성장 잠재력]

□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산업

- 통신 산업은 최근 우간다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임. 특히, 시장의 자유화와 함께 5개 통신사(MTN Uganda, Zain, Uganda Telecom, Hits Telecom, Warid)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동통신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2005-07년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평균 61%씩 증가한 바 있으며, 2007년에는 가입자

수가 전년대비 2.4백만 명이나 증가한 5.1백만 명을 기록하기도 하였음.

- 인터넷 시장 역시 InfoCom社를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이에 따라, 2000년 4만 명에 불과하던 인터넷 가입자 수는 2008년에는 2백만 명까지 증가한 바 있음.

□ 2009년 석유 상업생산 개시

- 우간다 Albert 호수 근방에 위치한 Rift Valley 지역에서 매장량 7~10억 배럴, 일산량 3만 배럴에 달하는 유전지대가 발견되어 2009년 말부터 상업생산을 개시할 예정임. 이에 따라, 우간다 내 정유공장 설립 및 인도양에 이르는 송유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향후 동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정책성과]

□ 경제개혁프로그램의 착실한 이행으로 국제사회의 신뢰회복

- 지난 정권의 인권유린 및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던 우간다는 1986년 Museveni 대통령의 집권 후 IMF와 World Bank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거버넌스(governance)를 꾸준히 개선하면서 아프리카 개혁 모범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음.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인프라 개발 및 장기간에 걸친 경제회복 정책추진이 지속되고 있음.
- 세계은행 및 서방 원조국과 함께 진행한 우간다 경제회복 프로젝트는 1987년 5월, '경제회복프로그램(Economy Recovery Program; ERP)'을 시작으로 통화개혁, 변동환율제 도입 등 물가안정과 시장경제 도입을 근간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각종 규제 철폐 및 공공부문 민영화를 통한 FDI의 유입 등 회복을 넘어 성장을 목표로한 경제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음.

□ 규제완화를 통한 해외자본 투자유치 노력 경주

- 정부의 거버넌스(governance) 개선과 거시경제지표의 안정적인 운용은 FDI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우간다의 FDI 유입액은 연간 약 4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저소득국(LIC) 34 개국 중 수단, 적도기니, 차드,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잠비아에 이은 7위에 달하는 수준임. FDI 대상 분야로는 유전개발, 농수산물 가공 및 서비스 부문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동국 정부는 향후 규제완화 확대를 통해 원예, 식품가공 및 관광분야의 FDI 유치에 주력해 나아갈 계획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 상 수 지	-317	-414	-323	-745	-1,273
경 상 수 지 / G D P	-3.8	-4.1	-2.9	-5.6	-9.5
상 품 수 지	-668	-729	-1,028	-1,296	-1,576
수 출	759	1,017	1,188	1,686	2,017
수 입	1,427	1,746	2,216	2,983	3,594
외 환 보 유 액	1,308	1,344	1,811	2,560	2,301
총 외 채 잔 액	4,753	4,427	1,264	1,498	1,707
총 외 채 잔 액 / GDP	56.3	44.1	11.5	11.2	10.9
D . S . R .	11.7	13.2	7.3	3.6	3.1

자료: IMF, EIU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기조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동국의 주요 수출품인 커피의 가격 상승, 주변 국가와의 교역 확대에 의한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륙 국가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운송 및 화물비용 부담,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輸入) 부담 증가로 인해 만성적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동국의 상품수지 적자규모는 2004년 7억 달러 수준에서 2008년에는 18억 달러로 세 배 가까이 확대되었음.

- 2009년에도 국제유가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수입(輸入)이 꾸준히 확대되고, 상품가격 하락 및 주변국의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10.6%로 확대될 전망이다.

[외채상환능력]

□ 외환보유액 증가, 외채상황 개선

- 외환보유액은 IMF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통한 서방 국가들의 원조, 동국의 원예, 식품가공 및 관광부문에 대한 FDI 유입 확대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2007년 FDI 유입액은 368백만 달러를 기록). 이에 따라, 2004년 13억 달러에 달하던 외환보유액은 2008년에는 23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음.
- 외채상황은 2000년 5월,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Completion Point를 달성한 데 이어, 2006년 IMF 및 World Bank의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를 통해 총 126.8백만 달러의 채무 탕감 효과를 누린 바 있음. 그 결과, 2004년 48억 달러(GDP 대비 56.3%)에 달하던 동국의 외채 규모는 2008년에는 17억 달러(GDP의 10.9%) 수준까지 감소하였음.
- D.S.R.도 2004년 11.7%에서 2008년 3.1%까지 낮아지는 등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대외지급 능력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GDP: 110억 달러('06) → 134억 달러('07) → 159억 달러('08)
 - 총 외채잔액/GDP: 11.5%('06) → 11.2%('07) → 10.9%('08)
 - 외채상환비율(D.S.R.): 7.3%('06) → 3.6%('07) → 3.1%('08)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정치 안정세 지속

- 우간다는 196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30여개 종족들 간의 분쟁, 이디아민(Idi Amin)의 폭정 등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어 왔으나, 1986년 현 대통령인 Yoweri Museveni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음. 이후 2005년 서방국가들의 압력이 있기 전까지 집권당인 National Resistance Movement(NRM)를 제외한 무정당체제(일당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대내외적인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정치안정, 경제성장과 사회적 생산기반 개선 추진 등을 통해 국민들의 높은 신망을 얻어, 2001년 재선에 이어 2006년 야당의 반발 속에서도 개헌을 밀어붙여 3선에도 성공한 바 있음.
- 최근 Museveni 대통령이 2011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야당의 반발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끄는 집권당 NRM(The National Resistance Movement)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으나, 현재 우간다 내 현 대통령을 대신할만한 후보가 부재하고 인구의 대다수가 집중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두터운 지지층이 형성되어 있어, 4선에도 커다란 어려움 없이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참고>

주요 약사

- 1962. 10월 독립(영국, 입헌군주국)
- 1963. 10월 공화국 선포 - Buganda왕 Mutesea 초대 대통령
- 1966-1971 Milton Obote 집권시기
- 1972-1978 Idi Amin 집권시기
- 1979-1980 우간다민족해방전선(Uganda National Liberation Front; UNLF) 통치시기

- 1981 - 1984 Obote 재집권시기
- 1985 Military Council 집권시기
- 1986. 1월 NRM(National Resistance Movement) 집권
- NRM 의장 Museveni 제 10대 대통령 취임
- 1986. 3월 모든 정당 활동 금지 포고령
- 1994. 9월 제헌의회에서 신헌법 채택, 정당활동 금지
- 1996. 5월 총선 실시, Museveni 대통령 재집권
- 2000.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무정당주의와 NRM에 대한 신임 확인
- 2001. 3월 Museveni 대통령 재선
- 2001. 6월 총선 실시, NRM 지지 국회의원 대거 진출
(국회의 총 282 의석 중 230석 이상 확보, 직접선거 의석 214석 중 170석 이상 확보)
- 2003. 5월 Prof. Gilbert Bukenya 부통령 임명
- Kategaya 제1부총리겸 내무장관 해임 및 3선개헌 추진
- 2005. 7월 다당제 채택, 대통령 3선 허용
- 2006. 2월 대통령 선거에서 Museveni 대통령 3선

□ 서방 및 주변국가와의 관계 약화 조짐

- 우간다는 비동맹 외교 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서방 실리외교를 추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간다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서방 원조국들이 부정부패와 20년간의 내전으로 황폐해진 북부 우간다 지방의 불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정부의 부진한 대응 등을 이유로 예산 지원을 삭감하면서 관계가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주변국가와도 국경 지대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우간다의 무역 수출항 역할을 하는 케냐와는 광산권과 관련하여 Victoria호 Migingo섬에 대한 영유권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최근에는 DR콩고와 석유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Albert강 주변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수단 및 르완다와도 접경 지역인 Yumbe 지역과

Katuma 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싼 크고 작은 마찰이 지속되고 있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국민 노동력 부족

- 동국의 총 노동인력 중 80%가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최근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수요에 대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말라리아, 에이즈와 같은 질병의 만연은 높은 결근율과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져 경제발전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UN의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에 의하면 우간다의 평균 연령은 49.7세이며, 18세 이하의 젊은 층이 우간다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무엇보다 에이즈, 말라리아 및 결핵으로 인한 성인 사망이 높은 데에 기인함.

□ 종족 - 종교세력 간 분열 지속

- 우간다는 다양한 종족 및 종교 세력으로 이루어진 국가임. Buganda족, Iteso족, Basoga족 등 34개 종족이 존재하고 있으며, 종교적으로도 총 국민의 42%가 가톨릭, 42%가 기독교, 12%가 회교를 이루고 있고 토착 신앙 또한 상존하여 종교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음.
- 이 같은 종족·종교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간다는 그동안 Museveni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 아래 비교적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 한편, 지난 5월 우간다의 최대 종족인 Buganda족의 Beti Kamyia를 중심으로 The Uganda Federal Alliance(UFA) 정당이 설립되었으며, Buganda 지역 내 토지개혁 등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현 체제에 대한 여타 종족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어, 다가오는 2011년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변화가 중요한 정치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함.

- * 설문조사기관인 Afrobarometer가 최근 우간다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개별 종족이 아닌 우간다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짐.

□ 정부군 - LRA 간 오랜 내전으로 치안 불안 지속

- The Uganda People's Defence Forces(UPDF)라고 불리는 우간다 정부군과 The Lord's Resistance Army(LRA)간의 내전은 지난 20년 이상에 걸쳐 우간다 내 치안 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 Joseph Kony가 이끄는 LRA는 우간다 북부지역과 수단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살해하고 수천명의 아이들을 납치하는 등, 인권 유린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저하시키고 정정 불안을 일으켜 현 우간다 정부에 대항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 2006년 수단 정부의 중재로 정부군과 반군 간 Juba 평화회담이 열렸으나, 이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Kony에 대해 비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된 바 있음. 2008년 12월, 수단, DR콩고 및 UPDF가 합동으로 벌인 LRA에 대한 소탕작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LRA의 보복 공격이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로 이어지는 등 동국의 치안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 OECD : 6등급 (2007. 10) → 6등급 (2008. 10)
- o ICRG : 113/140 (2008. 6) → 111/140 (2009. 5)
- o I.I : 111/177 (2008. 9) → 107/177 (2009. 3)
- o Euromoney : 113/186 (2008. 9) → 118/186 (2009. 3)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제한적 인수 가능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태도

□ HIPC Initiative, MDRI를 통한 채무탕감

- 우간다는 2000년 5월,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Completion Point에 도달하면서 17.2백만 달러를 탕감 받은 데 이어, 2006년에는 IMF 및 World Bank의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를 실시하여 총 109.6백만 달러의 외채부담 경감 효과를 누린 바 있음.
- 동국에 대한 대외원조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D.S.R.도 2004년 11.7%에서 2008년 3.1%까지 낮아지는 등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단기적인 외채상환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우간다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2006	2007	2008	주요품목
수 출	8,637	10,691	7,929	산업용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고무제품
수 입	1,693	3,068	4,009	농산물, 수산물, 비철금속제품
합 계	10,330	13,759	11,938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 1963년 3월 26일 (북한과는 1963. 3. 2)
- 주요협정 :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92)
- 우리나라와의 2008년 교역규모는 약 12백만 달러에 달함.
 - 주요 수출품은 산업용 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고무제품을 중심으로 약 8백만 달러, 수입은 농산물, 수산물, 비철금속제품을 중심으로 약 4백만 달러를 기록
- 해외직접투자(2009년 3월말 누계, 총 투자 기준): 1건 150천 달러

V. 종합의견

-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한 저소득국인 우간다는 취약한 경제 인프라와 지속되는 치안 불안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운영기반과 정부의 꾸준한 거버넌스(governance) 개선 노력에 힘입어 평균 7%대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그러나 2009-10년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인프라 개발 투자와 정보통신, 금융 부문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침체 악화의 영향으로 대외원조 및 외국인투자가 감소하고 일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또한 지연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경상수지 등 제반 경제지표가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정치적으로는 1986년 출범한 Yoweri Museveni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 아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군과 The Lord's Resistance Army(LRA) 간의 오랜 내전은 사회불안 요소로 남아있음.

전문연구원 김예리(☎02-3779-6686)

E-mail : yeliekim@koreaexim.go.kr